

‘5억원 도장’ 김도영, 비시즌에도 기록 행진 계속됐다

KIA와 2025시즌 연봉 계약 완료
지난해 1억원서 400% 파격 인상
KBO 리그 4년 차 역대 최고 대우
구단 통산 최고 인상률 역시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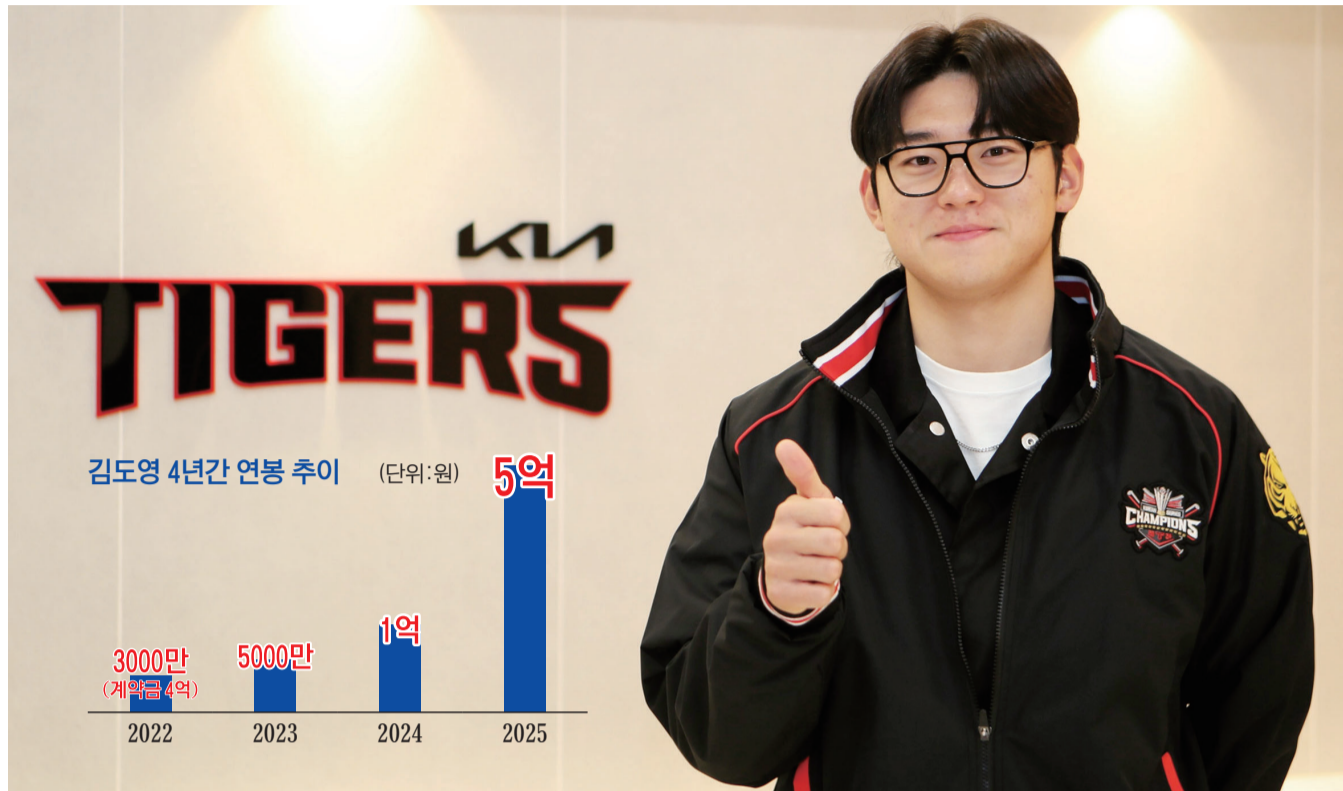
‘야구 천재’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의 기록 행진은 비시즌에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억원에서 400% 인상된 5억원에 올해 계약 도장을 찍으면서 KBO 리그와 구단에 새로운 역사를 남겼다.

KIA는 지난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김도영과 5억원에 2025시즌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시즌 1억원을 받았던 김도영은 4억원이 오르며 연봉 인상률은 400%에 육박했다.

이로써 김도영은 KBO 리그와 KIA 구단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됐다. 5억원은 KBO 리그 4년 차 선수로는 역대 최고 대우로 2020시즌 외야수 이정후(당시 키움 히어로즈)의 3억9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많은 금액이다.

또 인상률 400%는 KIA 구단 통산 최고 인상률로 2015시즌 1억2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된 투수 양현종과 2024시즌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투수 최지민의 233.3%를 훌쩍 뛰어넘었다.

다만 김도영은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KBO 리그 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은 무산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5억원에 2025시즌 연봉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은 2020시즌 투수 하재훈(당시 SK와이브스)이 27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받으며 세운 455.6%로 김도영은 5억5570만원 이상을 받아야 했다.

비록 하재훈과 연봉 인상의 출발점이 달랐던 김도영이 KBO 리그 역대 최고 인

상률을 갈아치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도영은 페넌트레이스 141경기에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하며 공격 부

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했고 득점상과 장타율상을 거머쥐며 올해 KBO 리그에서 유일한 멀티 타이틀 홀더가 됐다.

뿐만 아니라 월간 10홈런-10도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 내추럴 히트 포 더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쿼터폴 트리플(3할

타율-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아시아 프로야구 사상 최다 득점 타이기록 등 굵직한 대기록을 달성했다.

김도영은 한국시리즈에서도 5경기에 모두 출장해 타율 0.235(17타수 4안타), 1홈런, 1도루, 5타점, 3득점을 책임지며 생애 첫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고 KBO 리그 MVP와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다.

김도영은 구단을 통해 “열심히 한 것을 보답받은 것 같아 행복하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구단에도 감사하다”며 “이제 시작이다. 지난 시즌을 계기로 제 야구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계약 소감을 밝혔다.

이어 “팀이 잘해야 선수도 빛날 수 있다. 계속 승리를 쌓을 수 있도록 안다치고 팀에 보탬이 되겠다”며 “이렇게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팬들의 응원이 가장 컸다. 이제는 마냥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10억도 아깝지 않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IA 구단은 김도영과 계약을 체결하며 2025시즌 선수단 연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KIA 구단은 선수단이 22-23일로 나눠 1차 스프링 캠프인 미국 어바인으로 떠나는 만큼 이에 앞서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특급 신인’ 이재환 “데뷔전 멀티골로 인상 남길 것”

광주FC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데뷔전 데뷔골은 식상하잖아요? 멀티골로 제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광주FC 유니폼을 입고 성인 무대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환은 의욕으로 충만해 있다. 새해 첫 경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프로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공격수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각오다.

이재환은 21일 구단을 통해 “선배들과 감독님께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잘 챙겨주신다”며 “고교와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 속수 생활과 식사, 미팅, 훈련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것 같다”고 근황을 밝혔다.

광주FC는 지난 11일 이재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인천유나이티드 U-15(광성중)와 U-18(인천대건고) 출신으로 크게 관심을 모았던 이재환이 광주FC



인천 유스서 가파른 성장세
광주 유니폼 입고 프로 도전

유니폼을 입고 프로 선수로서 첫 발을 떼는 것은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다.

그는 “이정호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어 광주FC에 왔다. 첫 프로 경험을 광주FC



광주FC 이재환이 태국 코사무이 마라레이나 스포츠 리조트에서 진행 중인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에서 그리고 이정호 감독님 아래에서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우리 축구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시 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 더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환의 포지션은 최전방 공격수지만 이정호 감독의 요구는 공격에 그치지 않

는다. 수비까지 되는 선수여야만 실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박정민과 박인혁, 김윤호 등과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그는 “패스와 속도감이 확실히 빠르다. 훈련하면서 이래서 우리 축구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박)인혁이 형과 (박)정민이 형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또 공격만 하면 경기를 못 뛰기 때문에 훈련 외 시간에 따로 개인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전 체력만 구축된다면 경기장에서는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17세 이하 국가대표팀에서도 최전방을 책임질 정도로 유소년 시절부터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공 소유와 연계 플레이, 유기적인 움직임, 결정력 등에서는 정평이 나왔다.

이재환은 “연습을 열심히 하면 실력은 무조건 는다. 스트라이커는 페널티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며 “침착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고, 골을 넣지 못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 기회가 오면 무조건 시도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발디비아, 전남드래곤즈 사상 첫 외국인 주장 선임… “팀 위해 헌신”



김현석 신임 감독 체제로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창단 31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인 발디비아(사진)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다.

전남드래곤즈는 현재 태국 방콕 전지훈련을 진행 중인 김 감독이 2025시즌 주장

에 발디비아, 부주장에 김경재와 김예성, 박태용을 선임하며 주장단 구성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광양 예수’로 불리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디비아는 2년간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사상 최초의 외국인 주장이 됐다. 발디비



아를 비롯해 여러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 도중 임시로 주장 완장을 착용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감독이 발디비아에게 주장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와 기대

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발디비아는 지난 시즌 전반기를 마친 뒤 재계약으로 2026시즌까지 동행을 결정하며 전남드래곤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2023-2024시즌 K리그 통산(플레이오프 포함) 71경기에서 26득점과 20도움을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했다.

특히 2023시즌 K리그2 MVP와 도움왕을 석권했고, 2023-2024시즌 연속으로 베스트 11(미드필더 부문)을 수상하며 주가를 높였다.

발디비아는 구단을 통해 “주장으로 선임돼 기쁘고 감사하다.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팀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고,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며 “세정이나 완델슨 같은 브라질 선수들이 주장 역할을 잘 해낸 것처럼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